

# 국민의힘 '한동훈의 윤석열 배신론'에 한, 반박·일부 동조

### '비윤계' 김영우 "갈라치기 비열한 흐름 올라타기 안돼" 홍준표, 연일 한동훈 비판... "정치검사, 윤 배신한 사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배신론'을 놓고 당 내부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꺼내든 '윤석열 배신론'에 "배신이 아닌 용기"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비윤계로 꼽히는 김영우 전 의원 등도 한 위원장을 겨냥한 배신론에 대해 '비열한 흐름'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20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없고 신중히만 하다면"이라며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거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테니까"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 뿐",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 등 표현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윤석열 배신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4·10 총선이 끝난지) 열흘이 지났다. 실망하시고 기운빠지실 수 있고, 길이 잘 안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 결국 잘 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전 당대회 또는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정치 일선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영우 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의 흐름은 정권심판이었다. 우리 당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 닷붙일 수 있었지만 역시 아쉬움이지 비판이나 원한의 대상은 아니다"고 썼었다.

이어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돌을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왕세자니 폐세자니 하면서 당에 일선도 말라니 당의 정치 선배도 있고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다.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연평장으로 영망이었던

전 당대회, 비정상적인 강서구정장 공천과 선거 참패,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대 정원 논란과 이종섭·황상무 사건은 가히 놀라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도 한 전 위원장의 지원유세로 소위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며 "후보자들은 공천 받고나니 이런 저 살기위해 뒤통수 친다는 소리듣기 민망해서 야당의 잘못된 공천만 세계 비판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당의 미래전략이 부족했다구요? 매일매일 여권발 대형 약재가 터지는데 미래 얘기를 한들 들리거나 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가 훨씬 심각한 문제다"며 "한가지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하려는 아주 묘한 보수내의 움직임이다. 이런 비열한 흐름에는 올라타지 말자"고 호소했다.

앞서 홍 시장은 '윤석열 배신론'을 제기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총선 국면에서도 선거 지휘 방식을 문제 삼았고 총선 참패 이후에는 '폐세자'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을 배제한 보수 재편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 시장과 비공개로 만나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시장은 제안을 고사하고 김한길-장제원 카드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문 앞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다.

급 참패를 했다. 총선을 대권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 당에 일선거리면 안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한동훈을 애초부터 (대권)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등장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봤다. 윤 대통령과 같은 기적은 두 번 다시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도 "한 전 위원장

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국력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고 한 전 위원장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내의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없이 말아 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서선욱기자

## 순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화)는 최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준비위원회와 정병화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과 건축과·사회복지과·세정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광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무사 연결 ▲부도덕한 계약사태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서울 강서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선진 지원 사례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긴급복지지원금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 검토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누수 없는 피해자 실태조사 신속 실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지원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민주, 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항의 못하는 대통령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물음치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굴종 외교가 일본 과거사 역행에 명분 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익도 살리도 내팽겨친 윤 정부의 굴종 외교가 일본의 물음치한 과거사 역행에 명분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에 대한 성찰 없는 뻔뻔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제동원 배상관결 수용 불가 입장,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까지 외교적 도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올 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화 통화한 것을 거론하며 "용산 대통령실

이 두 정상 간 견고한 신뢰관계를 대대적인 보도자료로 배포한 지 나흘만"이라며 "윤 대통령은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나흘 전 통화에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하긴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국익도 전략도 없는 굴종 외교를 바라지 않는다. 일본의 되풀이되는 과거사 도발에 대해 이제 외교부 차원의 항의 성명을 넘어선 대응을 요구한다"며 "윤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굴종 외교'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께서 일본의 되풀이되는 과거사 도발에 대해 이제 한마디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